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2. 야곱의 환난

2014. 07. 2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1의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허락되면 셋째 대접, 셋째 재앙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렘30:5~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다 6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이뇨 7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넴을 얻으리로다.

1. 목사님,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시간에 쫓겨 그만 뒀는데 오늘 그 사건을 마저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답: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대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지낸 후에 돌아올 때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형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맞을 것인지에 대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어 그의 형의 근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마주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짐승 떼와 식구들과 종들뿐인데 그들은 군사가 아니지요. 야곱이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읽으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의 짐승 떼 중에서 형의 마음을 싸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처자들이 형에게 나아갈 순서를 정하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압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야곱을 찾아온 어떤 불청객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전 과정을 야곱의 환난이라는 한 마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2. 야곱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을 믿을 수 있었고, 둘째는 정 두려우면 도망을 가든지, 되돌아가든지 하면 안 됩니까?

답: 목사님이, 애청자들이 묻고 싶은 내용을 물으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몰래 떠났습

니다. 라반이 너무 자주 샅을 변경하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권솔들만 데리고 자기 소유를 챙겨서 몰래 도망했습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후 3일 만에 알았습니다. 그후 라반은 7일을 쫓아가서 야곱 일행을 만납니다. 길르앗 산기슭에서 만났습니다. 라반의 동네 밧단아람에서 야곱이 이른 길르앗 산까지는 298마일 곧 480km나 됩니다. 한국 이수로는 1,200리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히 도망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10일간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120리 길을 달린 것입니다. 아마 옛 사람이라서 오늘날 사람들보다 건장했을는지 모릅니다. 라헬이 약대 안장에 앉아서 아버지를 맞이한 이야기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짐승을 타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지요. 그랬다고 해도 그들은 밤낮을 도와 달린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잡힐까봐 무척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10일 만에 드디어 따라잡혔습니다. 라반은 7일간 1,200리를 쫓아왔으니 하루에 170km씩 달려야 합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게 질풍처럼 달려서 따라왔을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창 31:51-54절이 그들이 맺는 언약의 내용인데요 한 번 읽어봅시다.

[창31:51~55]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건은 종말에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여 괴롭히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동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아가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앞에는 에서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진퇴유곡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야곱이 이곳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한 것은 자기의 과거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3. 지난번에도 야곱이 자기의 과거와 씨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답: 예, 라반의 일도, 에서가 달려오는 일도 모두 야곱의 과거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원한을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현재 그를 두려워하게 하고 미래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것을 미래에 만나면 과거 때문에 미래도 어둡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만나는 것은 과거에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낸 것이나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은 사건이 그때 해결되지 못한 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보라 남자마다 해산하

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쩍이뇨.”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겪은 경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기의 과거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너무 살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두렵지요. 그리고 하늘성전은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속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중보자 없이 그 환난의 기간을 맞이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처럼 진퇴유곡에 처한 것이지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느 때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중보가 끝나면 누구든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구절을 차자봅시다.

[골1:16,17]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고 계시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떠나면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된 루시퍼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류의 시조를 유흥할 때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고후11:3을 읽어봅시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은 분명히 그렇게 계시했지요. 그래서 인류는 사망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인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창조주와 함께 창조주 안에서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15:5,6입니다.

[요15:5,6]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성전에서 속죄 중보를 끝내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때에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존속합니다. 야곱의 환난 때 중보가 없다는 말은 속죄 중보가 없다는 뜻이지 성도들이 예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불에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5. 예, 설명을 들으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도록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중매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언제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야곱의 환난 때가 지금이나 그가 비록 이 생명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예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존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다고 말하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롬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무덤에 갈지라도 거기 예수께서 계십니다.

[시139: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의인들은 죽어도 평안의 침상에서 쉬는 것이고 그 침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도 그들이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기까지는 주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중보가 되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은 존재를 완전히 상실해서 재가 되는 것입니다.

6. 예, 오늘 중보라는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것만 중보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한 것이 중보가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 대접에 대한 계시, 곧 일곱 재앙을 이야기하는 중에 야곱의 환난, 그리고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를 나누게 되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해야지요.

답: 예, 우리가 둘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셋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아야지요.

[계16:4~6]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기록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재앙으로 바다가 피 같이 된 것처럼 강과 물 근원도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릅니다. 바다는 피 같이 되었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생활하는데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물들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됩니다. 특히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것은 생활할 수 없는 근본을 잃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기록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외칩니다. 강과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한 것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지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력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세력입니다. 17장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계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성경에 피에 대한 기록이 꽤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7:11~14의 기록은 피와 속죄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레17:11~14]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을지니라 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빼앗을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물은 새물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고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은 또 그

런 표현도 했습니다. 신32:41에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신32:43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말이 40회 이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징벌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한 세력을 징벌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 그런 복수가 온당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당할 사망을 창조주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친히 대신 죽어주시면서 부디 생명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오히려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피를 마시게 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마셔서 없애버린 것을 표상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피를 자기가 마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소비하여 없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94:1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취소서.” 하나님의 복수는 빛을 비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끝까지 포기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회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7. 설명을 들으니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거절하고 그들이 원하였던 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일 뿐이군요.(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롭다고 찬양하는 셈이네요.

답: 옳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고 화답합니다. 5절에는 천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제단이 응답했다. 계시록에는 9:13에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 기록이 있고, 6:9,10에는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 직접 말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은 여기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심판봉사가 성전봉사의 결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제단은 향단입니다. 계시록에 제단은 다섯 번 나오는데, 모두 같은 단어인 “뒤시아스테리우스”입니다. 이것은 주위의 묘사에 따라서 번제단도 가리키고 분향단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이 단어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분향단의 불도 번제단에서 취하여 오기 때문에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지요. 아무튼 이것은 계시록의 내용이 성소구조와 봉사와 밀접히 관련된 것을 다시 나타냅니다. 번제단은 속죄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소리치며 동의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피를 흘려 생명을 대신 속하신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외침입니다. 학자들은 제단의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정당하다고 천사들이 외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단”은 핍박을 받아 순교당한 영혼의 기도(6:9,10)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8:3-5).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받는 성도들이나 순교한 자들의 신원에 부응하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가 이들

에게 이런 형벌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지요. 6:5,6절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라고 호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합당하지만 그 기도가 형벌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 존재를 반납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이 아니고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빌 2:9,10입니다.

[빌2:9~11]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천사나 우주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실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재앙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의롭고 참되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소리이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원망할는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으로 존재를 완전히 반납하게 될 때에 빌2:9~11의 내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은 온전히 증명되었습니다.

8.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과 사람들이 볼 때 형벌 같은 사건도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드러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